

광주세계양궁선수권 D-1년...손님맞이 준비 '착착'



세계 양궁인들의 축제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25년 9월5-12일)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2025년 9월22-28일)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양궁월드컵을 개최한 광주시는 '국제 스포츠 도시' 광주의 국제 대회 운영 실력을 발휘하며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1년 12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24년 1월 장애인선수권대

회 유치가 확정된 이후 올해 1월 세계양궁대회지원단(2개 팀 12명)을 문화체육실에 확대·신선했다. 지난 7월에는 정원을 늘려(14명)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섰다. 대회 준비의 첫 단계로 전 세계에 광주와 세계양궁대회를 알리기 위해 상징물을 개발하고 시민 공모와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슬로건, 엠블럼, 마스코트를 확정했다. 슬로건인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은 '5·18민주광장에서 쏘아 올린 화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평화를 기원하는 울림이 된다'는 의미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 정

'국제양궁장 시설 확충' 10월 착공 내년 7월 준공
'평화의 울림' 슬로건...38개 과제 성공 개최 박차
하반기 관련 조례 확정 내년 1월 조직위원회 설립

신을 담았다. 엠블럼은 신창동 마한 유적의 활을 소재로 '양궁도시'로서 광주를 상징한다. 마스코트는 무등산 주상절리를 모티브로 했다. 광주시는 최상의 경기력 발휘를 위한 환경 제공을 위해 8개 분야 38개 지원 과제를 마련하고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준비에 속도를내고 있다. 8개 분야는 ▲총괄지원 ▲문화관광 ▲홍보 ▲교통대책 ▲보건위생 ▲도시경관 ▲시민참여 ▲대회안전 등으로 해당 부서의 지원을 받아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주시는 세계양궁협회(WA) 규정에 맞는 양궁장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광주

국제양궁장 시설 확충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이달까지 마무리하고 10월 착공한다. 2025년 7월 준공 목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선수를 위한 휴게 공간 등 장애인 편의 시설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2025년 1월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광주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 조례는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조직위원회 설립 및 주요 사업', '예산·인력

등 조직위원회 지원'을 비롯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는 올해 하반기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며 예산 지원 및 소속 공무원 파견 등 본격적인 대회 운영 태세로 접어들어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자질 없이 준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파리 올림픽에 이어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기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선강 기자



'차례상 이렇게 차리세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4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송편빚기, 차례상차리기 시연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통음식 체험행사가 열렸다. 이날 외국에서 시집온 며느리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차례상 차림법을 배우고 있다. / 김애리 기자

5·18유공자, 항공기 탑승 거절 당했다

정준호 "“국가보훈신분증” 시행 불구 시행령 개정 안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5·18민주유공자가 공항 관계자의 실수로 항공기 탑승을 거절당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제회의에서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이용객 신분 증명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할 '국가보훈등록증'의 용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인 A씨의 제보에 따르면 항공기 이용 신분 증명을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했지만 공항 관계자는 5·18 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한국공항공사는 정당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했음에도 5·18 민주유공자

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행태를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등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시행했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 2(신분증명서의 종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등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2면에 계속 / 김진수 기자

전남권 의대 설립방식 발표 12일로 연기

10일 목포대·순천대 설명회 결과 검토 후 공개

당초 5일로 예정돼 있던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방식 발표가 12일로 연기됐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공모'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기관)은 4일 설명자료를 통해 "5일 발표 예정이었던 전남권 의대 설립방식 최종 발표를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용역기관은 "10일 목포대와 순천대에서 대학설명회를 개최기로 함에 따라 대학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해 설립방식을 12일 발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권 의대 설립 관련 대학 설명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목포대 도림캠퍼스, 같은 날 오후 3시 순천대 산학협력관 1층 파루홀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용역기관은 양 대학의 설명회 참가가 의과대학 설립 대학 추천 공모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설명회에서는 양 대학 교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용역 추진 경과 설명과 설립방식, 공모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할 계획이다. 용역기관은 "대학 설명회에서 나온 설립 방식에 관한 의견을 설립방식선정위원회가 검토해 최종 설립 방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권 의대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5일 5차 회의를 열어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학 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검토·반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용역기관은 지난달 29일 전남권 의대 설립방식 기본안으로 ▲의대 1곳 선정 후 동·서부 2개 대학병원 신설 ▲의과대학·대학병원 동일 지역 설립 등 2개 안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5일간 '설립 방식 기본안에 대한 적합도'를 묻는 도민(2천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 김재정 기자

Today	
기획...유기능 명인을 만나다	9면
발효식품 명맥...김영민 대표	12면
양현중, 10년 연속 1500이닝	16면
타이거즈, 홈 최다 관중 신기록	16면

A soundscap e Of The 21st Century

PANSORI 판소리

모든 의 울림 두 의 소리

2024.9.7. — 12.1.

15th Gwangju Biennale 제15회 광주비엔날레

Venues Gwangju Biennale Exhibition Hall and select location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Hosts Gwangju Biennale Founda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 장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광역시 일원 주최·주관 (재)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